

오전(1부) 대방동 7시	7시
오전(2부) 7시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3시
오후(4부) 3시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	7시
오전(2부) 10시	3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7시
저녁예배 7시	(저녁) 8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1월 3일 (제102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원칙과 정의

칼이 무자비하게 휘둘러져선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출 23:6~7)고 말씀하셨다.

반대로 칼에 정의 있어도 안 된다. 칼에 정의 있으면 내가 죽고 만다. 만일 내가 서울 교회 담임인 이시대 목사가 내 동생이니까 정 때문에 할 말을 못한다면 결국 우리 교회를 죽이는 꼴이 되고, 결국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다.

동남아의 소국 싱가포르의 빈곤과 무질서가 판치는, 곧 완전히 망할 것 같은 나라였다. 그러나 리완유가 집권한 뒤 싱가포르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 그런데 리완유의 최측근이자 오랜 친구인 건설담당 장관에게 건설수주에 따른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났다. 이 장관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고, 당시로도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그래서 주위 측근들은 정상참작을 해달라며 처벌을 반대했다. 그러나 리완유가 든 칼은 정의 아니라 냉정한 정의의 칼이었다. 그 장관과 그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수장(水葬)하기로 결정한다. 이 소식을 들은 장관은 결국 감옥에서 자살하고 만다. 칼은 정의를 위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뽑아야 한다. 인정이나 동정, 뇌물에 의해 휘둘리면 결국 그 칼은 나를 치게 될 것이다. 칼이 정에 사로잡히면 공정할 수 없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해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므로 결국 내가 칼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은 아무나 가지면 안 된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사11:4~5).

지난주일 목사님의 설교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 함께 은혜를 나누려한다. 준비와 점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으나 목사님의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갈 미래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적시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

“나는 누가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든 말든 꿈이 있기에 준비한다. 내 일생 비록 더딜지언정 뒤로 물러간 적이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더딜지라도’이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해야하는 정치조직도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한 마리의 양조차도 품고 가야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논하며 인간적이고 세

기업은 이리 저리 갈라 쳐내며 조직의 효율성을 앞세울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한 양이기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옛말에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했지만, 목사 똥은 돼지도 안 먹는다.”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는가 마는 목회자의 인내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예전에는 집회 때마다 예수의 제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사전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며 거르고 또 거르신다.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양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달이나 자존심 일랑 다 버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6~27).

서울교회 성전은 안 짓고 왜 또 기도원 호텔을 짓느냐 할지 모르나 목사님은 서



꿈을 갖고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2005년 인천예수중심교회 봉헌예배)

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갈 수 없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처리하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 교회다.

“교회는 정치가나 재벌, 학자를 길러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곳이고,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그 어떤 원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변화, 개혁해가는 사람이 아닐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느리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히12:1).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14:12).

단에서 카리스마로 가득한 설교로 외쳐대는 모습만 보고 오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목회는 그야말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인내로 가득하다. 목사님 말씀처럼 상담의 90% 이상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든지 문제로 고통 받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리려고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되뇌인다. ‘목사,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울교회만의 목자가 아니다. 그리고 서울 교회 성전건축 역시 목사님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꿈이다. 더딜지언정 목사님의 꿈은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며 이루어온 역사가 증명하지 않는가. 믿음과 인내로써 목사님과 함께 기도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보자. 성전 건축도, 평화통일의 역사도, 그리고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끄는 세계 선교의 역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는 한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추계산상집회

11월 25일(월) ~ 28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41:25~43)

준비하지 않는 자, 기대할 것이 없다

한 젊은이가 제게 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놔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에겐 취업할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고, 금수저가 어쩔고, 흙수저가 어쩔고 불멘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봐,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구먼. 너에게 기회가 오지 않은 것은 네 처지 때문이 아니야. 네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세상은 준비된 자, 실력 있는 자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 세상이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네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거야. 준비하지 않은 나를 탓해야지, 왜 세상 탓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 성공도, 행복도 다 준비한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신데렐라가 신였던 마법의 신발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옛세 동안 만물을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예비하셨습니다(엡1:4~5). 당신과 마음이 합한 다윗을 찾으셨고 그 혈통을 따라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단 열매를 딸 수 없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로 내려오사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조용히 30년을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그는 물과 성령세례를 받으신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의 능력을 펴시고 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확증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훗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렇듯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곧 수능이지요? 수험생 여러분, 준비 다 되었습니까? 출격할 준비를 마쳤습니까? 3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자는 수능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겁나지 않고 되레 반가울 것

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자나 아직 준비가 덜된 자는 불안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결과는 준비한 만큼 나올 것입니다. 그날의 운이 좌우한다고요? 천만에요. 행운도 준비하고 노력한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 2003년에 우리는 기독교원 호텔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제2의 호텔공사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진행함에 앞서 마음에 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총회장 이초석 목사

아 그 비용을 예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6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공사에 앞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철저히 계산하고 확보한 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로 충분히 준비한 후에 시작할 것입니다. 무작정 덤벼다가는 수치만 당하기 때문이고, 맨땅에 헤딩하는 생고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철저히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역대상 22장에 보면 성전건축에 돈은 물론이요, 못부터 성전을 장식할 보석까지 준비했으며, 석수와 목수, 일에 능한 자를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공사를 거침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준비하면 준비하지 않은 것과 일반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충’입니다. 대충대충 준비하면 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를 하긴 했는데 대충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기름이 떨어졌고, 다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잔치문이 닫히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요, 세상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것이기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눅12:40).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는 살찐 일곱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해주는데, 이는 곧 애굽 땅에 칠년 동안 풍년이 들겠고, 그 후 칠년 동안 흉년이 들어 이 풍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는 곧바로 요셉을 총리로 세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요셉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칠년의 풍년 동안 소출을 저축하여 흉년에 대비했습니다.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

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창41:47~49). 그 결과 다른 나라는 기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애굽은 오히려 양식을 팔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웠던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의 것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님을 세 명 초대했어도 혹시 모르니 좀 여유롭게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예를 들어 사업이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도 미리 예산하여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노력’을 의미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며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뿐 아니라 건강도 잘 챙겨야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만보걸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매사 철저히 준비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요? 월동준비는 하셨나요? 김장도 해놓고, 겨울옷도 챙겨놓고, 문풍지도 유리창도 막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를 사느라 사후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자만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밭을 갈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세요. 이 건 안 믿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베짖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했지만, 개미는 열심히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습니까? 겨울에 개미는 평안하고 넉넉하게 살지만, 베짖이는 개미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러 가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단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적절한 안전마진

투자를 함에 있어 주식의 내재가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마진 계산도 불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멍거나 버핏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명백할 만큼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한 주식만 고르면 일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멍거는 투자관련 섀은 단순하고, 명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안전망을 확보해준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회사의 사업전망이 유망하다고 투자할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우리가 주식매입에 투입한 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투자자는 가격이 아니라 기업의 우수성이 투자의 위험 정도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도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우수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불한 가격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중이 특정 투자대상을 높이 평가한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워드 막스도 말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 가격이 높았던 회사의 주식이 갑자기 하락했다고 해서 매입하는 행동 역시 안전마진 관점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은 기업을 통째로 구입하려고 하는 개인 소유주의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주식가격에다가

주식 수를 곱한 값이 가치평가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값이 나왔다면 그야말로 기회라고 했습니다. 당신 앞에 추가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크나큰 안전마진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내재가치와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방법이 부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는 않지만, 가치투자자들에게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치투자자는 “금융 분야에서 가치평가란 장기수익을 결정하는 주요요소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적정가격에 구입하는 것이 투자목적이 아니라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매입하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다. 이 말은 적정가치의 추정치가 꼭 정확한 숫자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실수와 불운이 닥쳤을 때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마진을 추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 기본을 망각하고 안전마진 없이 투자를 감행할 때, 투자자는 원금을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위험을 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의 일이고, 안전망은 방언기도입니다. 목사님께서 방언기도는 도난방지 장치이며, 나에게 귀신이 접근 못하게 하는 영적 전투를 흐르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자동방어시스템인 방언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비밀을 마음껏 나누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 성경예세이 ::

과배기 인생이 되지 말라

여보게!
요즘 자네 일이 잘 안 된다며? 자주 꼬인다면서? 왜 그럴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말일세.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얽히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얽혀서 그런 거라네.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매었기 때문이라네. 괜히 성경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6:14)고 한 게 아니라네. 그런 자와 얽히면 인생이 꼬이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 젊은이 중에 중고자동차매매를 하는 자가 있네. 그 교회 담임목사가 꼭 심방을 해달라고 해서 갔지. 가서 내가 한 말은 다른 말이 아니네.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지 말라는 거였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업을 하면 일이 꺾이기처럼 꼬이고 잘 될 수가 없다고 했지.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젊은이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일이 아주 잘 돼서 매출이 전국 1위에 올랐다는 거야. 그의 말인즉 내가 하라는 대로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과했고, 종업원들은 다 우리 교회에 다니게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일이 술술 풀리더라는 거지.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니까.

여보게!
시장이나 제과점에서 과는 꺾배기 알지? 꺾배기는 참 맛있지만, 꺾배기처럼 꼬이는 인생은 괴롭지. 꺾배기처럼 꼬인 인생을 푸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아. 영건 실타래를 푸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 실이 너무 엉켰을 때 어찌 하나? 옛날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럴 땐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걸 가위로 잘라내더군. 꼬인 인생도 아낌없이 잘라내는 게 상수라네.

지금 자네의 결단이 필요하네.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든가, 그게 아니거든 동업에서 갈라서게.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나?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했고, 결단은 자네의 몫이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게. 좋은 사람보다는 분명한 사람이 되게. ‘어떻게 잘라?’ 하지 말고, 자네가 잘된 후에 그를 돕게나.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란히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음을 꼭 명심하게나(고후6:14~16).

朋友

최고의 선택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내가 가장 크게 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매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평생 선택하며 산다. 어떤 광고문구처럼 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기에 선택하는 일은 언제나 신중하다. ‘그레이스 하우스’라는 영상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일들을 주문받는데, 가끔 이상한 단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곳에서 제작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런 경우 돈이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거절한다. 그러면 순간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예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위로하심

을 느낀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이나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에 반(反)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백문백답, 천문천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외치시며 언제나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주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 그래서 나는 늘 기도한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언제나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할 때 망설임 없이 주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의 최고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은성



:: 소망의 언덕 ::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도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시대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시정집회를 위한 40일 작정기도부터 집회를 마칠 때까지 충성되게 달려온 우리 예수중심교단 산하의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시며 독려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배시간에 본 ‘2003년 기도원 호텔공사’ 영상은 온몸을 전율케 하였고, 마치 느헤미야 시대에 들어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소리를 현장에서 느끼는 것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의 앞선 어른들이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가셨던 그 길을 우리 세대에 한번 더 허락해주심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른신들에게 다시금 감사의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2003년 저는 군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 단지 며칠 동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보다는 군복무 기간에 공사가 있었음

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끄러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교단 목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의 희생으로 양육되어 이제는 성전건축이 얼마나 귀하며 깨끗하고 두려운 심령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예수중심 믿음의 2세대들이 귀한 영상을 보며 더욱 각성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명 시간은 흘러 제2호텔이 완공되고 봉헌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명소가 된 예수중심기도원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첫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늘의 상이 많이 쌓일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마구 뛰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칭찬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동참합시다.

목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전 제가 예수중심교회 전도사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 교단의 일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현승 전도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자

오랜 시간 학원 일을 하면서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들의 갈등을 참 많이 보고 살았다. 요즘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지지고 볶을까’ 생각하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내 주변에는 신생아부터 30개월 내외의 귀염둥이들의 부모가 꽤 많아졌다. 사랑만 받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며 ‘껌딱지’처럼 들러붙는 아이들로 인해 난감해하는 일도 아주 흔하게 본다. 엄마가 없으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울부짖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러다가 크면 엄마 끌도 보기 싫다고 하겠지.’라고 절로 웃음이 나왔다. 엄마 ‘껌딱지’로 살던 아이들이 커서 독립된 자아를 찾기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껌딱지’로 여기니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비슷하게 다른 이야기. 나를 비

롯해 내 포레들은 모두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살아왔기에 독립을 했음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뻘뻘하고 있다. 냉장고에는 양가 어머님들이 해주신 반찬이 가득하고, 양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보고,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외출을 나간다. 다행히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꺼이 자식들의 고단함과 번거로움을 함께 나누어주신다. 부모님들의 배려는 금방 습관이 되고, 달콤하고 편리한 습관 속에서 이제 막 초보 부모가 된 우리들은 또 이렇게 부모님 품속의 자녀로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고 싶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창2:24). 이 구절은 아담과 하와가 가

정을 이루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든 가정의 모습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완전한 가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혼을 하고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면,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부모님들과 끝없는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세대, 우리세대와 우리 자녀세대가 아름다운 화합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를 떠나’ 이 세상으로 우리 스스로 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훈지 집사
ppjee@hanmail.net

마음은 원이로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셨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마치 아이가 기특할 때 “우리 아들 뭐해줄까? 아빠가 다 해줄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아빠! 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문제를 사주세요!”라고 말하는 요즘 아이들이 있을 진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또 하나님의 눈에 기특하게도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어릴 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꿈에도 나타나셔서 물으시면 나도 지혜를 구해야지.’라고 되뇌었다.

요즘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내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면, 나는 체력을 구하리라고. 정말 꿈에 나타나시면, “하나님! 제게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세요!” 할 것 같다. 어린 아들들을 키우다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커피도 필요하다.

퇴근 후 집에 와 저녁을 먹고 애들과 놀아주다 아내와 함께 애들을 씻기고 재운 후 집안일을 좀 하고 나면, 하루의 체력이 바닥난다. 바로 자기엔 아쉬워서 졸린 눈을 버티며 좀 널브러져 있다가 자기 전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잠에 든다. 그런 생활을 반복하며 점점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체력이 달리지만 않는다면 참할 수 있는 게 많겠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아지긴 하겠지만 여섯 살 터울인 둘째가 언제 클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첫째에 힘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여 어떻게든 잠시라도 운동을 하려 한다. 몸이 지치니 영적인 생활도 많은 제약을 받는다. 베드로가 자꾸 잠에 들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렇게 들린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체력이 달리는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막14:38).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Good News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가상세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광대한 우주가 순간적인 대폭발 ‘빅뱅(Big bang)’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허무맹랑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이나 빅뱅이론보다 창조론이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없으며, 진화론이나

빅뱅이론으로는 질량불변의 법칙과 엔트로피증가법칙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의 명성은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무지한 자임을 자인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였는데 죽은 뒤에야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도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

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죽은 뒤에 돌아갈 곳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을 받는 영벌의 세계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죽은 뒤에는 선택할 기회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복락의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의 지옥입니다.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 생활속의 잠언 ::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장성 기도원 동산에 올라가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몇 날밤을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셨다. 내가 잘하는 것은 공부였고, 잘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대학교 재학시절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던 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시작했던 학원 일은 지금 거의 삼십 년이 되어간다. 몇 년 전,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목사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우물파기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눈에 이상이 생겨 글자 읽기가 어려워졌고, 수업 시간을 줄여야 할 즈음 이십여 년 만에 해외 나들이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친구가 떠난 선교지인 말레이시아를 여러 번 드나들면서 그 나라의 교육환경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방학이면 라이브 잉글리시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학생들과 캠프를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11월 레베카유학센터라는 말레이시아 전문유학원

을 학원의 귀퉁이에서 시작했다. 간판도 없고 직원도 한 명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일거리가 생기고, 지난 세월 평생의 업이었던 영어강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 늘 평생의 모토로 생각하는 ‘평소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게 된 것이다.

주신 새로운 일을 신명나게 하면서 글로벌 CEO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배운 소중한 것이 있다. 한동안 내 의지로 많은 일을 해보겠다고 밤마다 기도로 주님께 보며 달라고만 했던 강령의 기도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선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을 때 왜 달라고 보낸 일거리의 절반만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능력을 미리 헤아리셨고, 결코 할 수 없는 양의 일거리는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적정량만큼의 일을 주님께선 미리 알고 계셨다. 그 이후로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바디매오가 주님을 불렀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미리 헤아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

를 조아린다.

지나온 평생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주셨던 주님이셨고, 모든 것들을 미리 정확하게 기획하고 설계하고 계신 그분의 능력 앞에 감사를 드린다.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주님의 다스림을 숭한 세월이 지난 지금 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왔던 사십년 광야생활의 시간보다 더하지 않은 지금이라도 소중한 당신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할 일이다.

주님께 순종한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선물로 받은 것처럼, 날마다 독한 집념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서 베드로가 받은 선물 같은 축복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평생 소중한 인생의 지도자로 광야생활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의 교훈과 가르침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선물 받았노라고 자랑하며 살아간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삶을 기획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 지금의 곤고함도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감사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자유 집사

